



배포일시	2019.3.22.(금) 17:00	보도시점	2019.3.25.(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3.24.(일) 12:00부터]
담당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성주	연락처	041-550-0910
담당	소방장 이용철	연락처	041-550-0925
쪽수/붙임	3쪽 / 있음	대변인실	044-205-7017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 국민안전·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힘찬 도약 -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최태영)는 3월 22일(10시45분)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관계자와 졸업생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남 26, 여 4)은 지난해 3월에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1년간 단계별 기본·현장대응 역량교육·훈련과정을 마치고 소방위로 임용된다. 임용과 동시에 재난현장 최 일선 소방관서에서 화재·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한다.
- 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우수 성적을 거둔 김배준 소방위(38, 우송공업대)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윤성욱 소방위(36, 용인대학교), 행정안전부장관상은 김관희 소방위(39, 한양대학교), 소방청장상은 고대영 소방위(27, 동국대학교), 중앙소방학교장상은 이인철 소방위(30, 국민대학교)가 수상했다.
- 특히 졸업생 중 김현수(남,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졸) 소방위는 소방간부로 임용되기 전에 공군간호장교로 복무하면서 에볼라 긴급구

호대 3진으로 시에라리온 가더리치에서 5주간 의료활동을 수행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 받았다.

-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배준 소방위는 2008년도에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입문 한 뒤 10년간 근무하다가 4전 5기 도전 끝에 소방간부후보생에 합격했다. 김 소방위는 현장 활동 경험을 살려 소방조직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꿈을 가져 소방간부후보생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했다.

□ 이외에 현직 소방공무원 출신이나 가족 소방관도 있다.

- 부자 소방관으로 권효민 소방위의 아버지(권영욱 소방경)는 현재 부산 해운대소방서, 김동건 소방위의 아버지(김현택 소방경)는 부산 강서소방서, 탁경미 소방위의 아버지(탁현수 소방경)는 경남 사천소방서, 한상현 소방위의 아버지(한재식 소방위)는 창원 창원소방서에 재직하고 있다. 고대영 소방위의 아버지(고건호 소방정)와 이인철 소방위의 아버지(이동선 소방정)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 자매 소방관으로 류진 소방위의 언니(류경현 소방교)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설혜정 소방위의 동생(설혜민 소방사)은 부산 부산진소방서에서 각각 재직 중이다.
- 이들 모두는 "가족이기에 앞서 선배 소방관인 아버지와 언니, 동생의 가르침을 배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한

영웅 소방관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제 국립소방연구원 설립*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여러분들이 주춧돌이 되어 앞으로 소방학문과 연구개발 분야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청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며 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개방형 임기제)으로 임명하고, 인력은 기존 22명에서 21명(원장 1, 연구 9, 일반 2, 소방 9)을 증원한 총 43명의 인원으로 확충된다. 올해 상반기 책임운영기관으로 정책 지원과 과학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927명이 배출되었다. 이번에 졸업하는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은 총 30명(남26, 여4)이고, 최연소자는 24세(여), 최고령자는 39세(남)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이용철 주임(☎ 041-550-0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참고 1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현황

□ 인 원 : 총 30명

성별	연령													
	계	24	27	28	29	30	31	34	35	36	37	38	39	
계	30	1	1	5	5	4	3	1	1	2	2	3	2	
남자	26	0	1	4	4	4	2	1	1	2	2	3	2	
여자	4	1		1	1		1							

※ 평균 31.9세(최연소 24세, 최고령 39세)

□ 졸업생 현황

구분	기수별 계	기수별																								
		1기 (77)	2기 (79)	3기 (82)	4기 (84)	5기 (86)	6기 (89)	7기 (92)	8기 (94)	9기 (96)	10기 (98)	11기 (00)	12기 (02)	13기 (04)	14기 (06)	15기 (08)	16기 (10)	17기 (11)	18기 (12)	19기 (13)	20기 (14)	21기 (15)	22기 (16)	23기 (17)	24기 (18)	
선발 (경쟁률)	940	50 (5:1)	50 (14:1)	50 (17:1)	50 (12:1)	50 (23:1)	47 (24:1)	40 (8:1)	50 (56:1)	50 (28:1)	50 (22:1)	39 (73:1)	38 (67:1)	40 (63:1)	37 (44:1)	39 (46:1)	39 (51:1)	20 (69:1)	20 (17:1)	30 (17:1)	30 (20:1)	30 (20:1)	30 (20:1)	30 (21:1)	30 (21:1)	30 (30:1)
교육	927	46	49	48	50	50	45	39	48	50	40	39	38	39	37	39	20	20	30	30	30	30	30	30	30	30

※ 역대 여성 간부후보생 현황(총 41명 / '18. 12. 31. 기준)

- 12기3명, 13기4명, 14기3명, 15기3명, 16기4명, 17기2명, 18기3명, 19기3명, 20기4명, 21기4명, 22기4명, 23기4명

□ 시·도별 배치 현황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인원(명)	30	4	2	1	2	1	1	5	2	1	2	2	2	2	1	1	1

□ 지도교수 명단

사 진	소 속	성 명	최종 학력	주요경력
	한경대학교	이원희	서울대 행정학박사	· 행정학회 연구위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 · 국회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우송대학교	인세진	충남대 공학박사	· 소방방재청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동성	서울산업대 석사	· 前) 충북소방본부장 · 前) 부산소방안전본부장 · 前) 중앙소방학교장
	선문대학교	노상균	원광대 의학박사	· 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소생위원회 위원 · 응급구조학회 학술이사 · 한국화재소방학회 편집위원

□ **시상 계획**

○ **대통령**

- 성 명 : 김 배 준
- 생년월일 : 1982. 12. 7.(38세)
- 출 생 : 전라북도 정읍시
- 학 력 : 우송공업대학교



○ **국무총리**

- 성 명 : 윤 성 욱
- 생년월일 : 1984. 11. 28.(36세)
- 출 생 : 부산광역시 동구
- 학 력 : 용인대학교



○ **행정안전부장관**

- 성 명 : 김 관 희
- 생년월일 : 1981. 3. 6.(39세)
- 출 생 : 대구광역시 북구
- 학 력 : 한양대학교



○ **소방청장**

- 성 명 : 고 대 영
- 생년월일 : 1993. 2. 5.(27세)
- 출 생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학 력 : 동국대학교



○ **중앙소방학교장**

- 성 명 : 이 인 철
- 생년월일 : 1990. 2. 22.(30세)
- 출 생 : 경기도 광명시
- 학 력 : 국민대학교



참고 3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참고 사항

구 분	성 명
국가유공자(1명)	· 김현수(前 간호장교,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에볼라 긴급구호대 3진 파병 근무, 대위 전역, 보국훈장 광복장 수여로 국가유공자 지정)
부자, 부녀 소방관 (6명)	· 고대영(부친 소방정 고건호 - 퇴직 소방공무원)
	· 권효민(부친 소방경 권영욱 - 부산 해운대소방서)
	· 김동건(부친 소방경 김현택 - 부산 강서소방서)
	· 이인철(부친 소방정 이동선 - 퇴직 소방공무원)
	· 탁경미(부친 소방경 탁현수 - 경남 사천소방서)
	· 한상헌(부친 소방위 한재식 - 창원 창원소방서)
자매소방관(2명)	· 류진(언니 소방교 류경현 - 서울소방재난본부)
	· 설혜정(동생 소방사 설혜민 - 부산 부산진소방서)
공직 경력 (3명)	· 강석민(경기 양주소방서 소방사 → 경기 덕현고등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 소방간부후보생)
	· 김진휘(대전고등법원 법원행정 공무원 → 소방간부후보생)
	· 김성준(서울 서일 초등학교 교사 → 소방간부후보생)
특수 경력(1명)	· 이명주(해군 해난구조대 SSU, 중위 전역, 한국해양대학교 졸)
소방직 경력 (4명)	· 강석민(1년)
	· 김배준(9년)
	· 송철의(6년)
	· 이문석(4년)
성적 우수자 (5명)	· 김배준(대통령상)
	· 윤성욱(국무총리상)
	· 김관희(행정안전부장관상)
	· 고대영(소방청장상)
	· 이인철(중앙소방학교장상)
최고령 합격자	· 강성민(남, 39세)
	· 김관희(남, 39세)
최연소 합격자	· 탁경미(여, 24세)
민간경력(2명)	· 김경민(前 한화손해보험 지점장)
	· 김관희[前 삼성엔지니어링(사우디 근무)]

□ 재난 전문가로 일하고 싶은 꿈 : 김현수 소방위(30세)

- 前 공군간호장교, 에볼라 긴급구호대 3진, 평창동계올림픽 의료통역
 - 2014년 말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및 위험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빠짐
 - ASSEN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함
 - 공군 간호장교 신분으로 지원하여 에볼라 긴급구호대(KDRT) 3진으로 최종 선발됨
 - 국내의 국군 간호사관학교, 합동참모본부, 국방대학교에서 영국 Red R에서 사전교육을 받음
 - 시에라리온 가더리치 Ebola Treatment Center에 배치되어 2015. 2. ~ 2015 3. 약 5주간 의료활동 후 귀국함.
 - 이후 외교부에서 공적을 높이사 청와대에 대통령 훈장을 추천하여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함
 - 17. 5. 공군 대위 전역 후 제 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 함
 - 1년의 간부후보생 교육에서 얻은 지식과 앞으로 임용되어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끊임없는 자기단련을 토대로 재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다시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다!!! : 강석민 소방위(38세)

- 다양한 공직 경력(소방·교육행정 공무원), 현직소방관(경기 1년)
 - 2010년 소방공무원인 친구의 권유로 처음 소방관(소방사)에 입직하여 근무하는 동안 여러 현장을 두루 경험하였고 소방은 나에게 처음으로 사명감을 일깨워준 직업이었다.
 - 그 후 근무하면서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왕이면 큰 포부를 갖고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열망으로 일을 그만두고 간부후보생에 도전하였다.
 - 첫 응시로 1차 필기에 합격하였지만, 2차 체력에서 탈락의 고배를 맛 보며 당시에 도전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재도전에 대한

- 미련을 버리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다시 공직에 입문하였다.
- 하지만 교육행정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세월호 사고와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를 뉴스에서 전해들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이 안타까웠고 그 후 내안에서 무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 과연 ‘이 길(교육행정공무원)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일까?’ 라는 물음으로 1년여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자!’ 라는 해답을 내리며 또다시 도전을 하였다.
 - 결국 3번의 도전 끝에 내가 하고 싶은 소방간부후보생에 합격을 하였고, 이제는 이곳에서 국민과 조직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고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 **생명을 지키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 김관희(39세)**

-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플랜트회사에서 10년을 일했다. 오랜 사우디 현장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있는 시간이 많았고 회사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매스컴 속의 소방관들의 삶과 내 삶이 비교되기 시작하였다. 적지않은 나이로 인해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을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책임 4년 차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꿈을 이루게 되었다.
- 늘 살면서 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아야 진정한 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을 때는 그 방향으로 들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의 의미를 가슴속에 늘 간직하며 살겠다.

□ **아버지를 보며 걸은 길,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 김동건(28세)**

-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서 소방관에 대한 동경과 존경심이 생겼다.

- 제대를 한 후부터 공부에 성취감을 많이 느껴서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지만, 막상 졸업직전까지 정작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 어느날 아버지께서 집으로 퇴근하시던 차에서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을 권유하셨다. 처음엔 고민하며 시작한 공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멋진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 공부를 하면서 체력학원도 병행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응원, 친구들의 격려와 누군가에겐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되뇌면서 1년여를 준비한 끝에 24기 소방간부후보생에 합격하였다.
- 최종 합격자 발표날 눈물을 글썽이시며 나를 끌어안고 뛰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일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더욱더 존경심이 우러났다. 또한 진정한 소방관들을 여럿 만나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자람에 대한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다.
- 이러한 존경심과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졸업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국민들을 위한 소방관, 나아가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관으로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싶다.

□ **10년차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이 되다. : 김배준 소방위(38세)**

○ 수석졸업, 시험도전(4전 5기), 현직소방관(대전 10년 근무)

- 막연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도전한 대전시 소방공무원 공채에 2008년 합격하였다. 현장에서 의연하게 들었던 사명감과 화재진압 후 돌아오는 소방차 안에서 창문 넘어 들어오는 바람에 땀을 식히며 느꼈던 보람이 컸기에 천직으로 여기며 일하게 되었다. 현장 활동을 하면서 몸으로 익혔던 기술과 행정업무를 하며 다져진 지식을 기초로 소방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소방간부후보생에 도전하게 되었다.
- 근무를 하며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두 아들과 육아에 지친 아내를 두고 공부 하러 나갈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장기간 교대근무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신체 리듬이 깨져 건강도 좋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나를 믿어준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참고 노력하였고, 여러 해 합격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며 힘겨웠지만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 소방간부후보생시험에서 아깝게 실패할 때마다 느꼈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좀 더 단단해졌고, 마침내 2018년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되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자랑스러웠고, 오랫동안 바라왔던 꿈을 이루게 되어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지난 1년간 동기들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다. 소방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개미는 작지만 성실하게 일하여 자기 몸집에 3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현직에서의 10년 간의 경험과 간부후보생 교육을 바탕으로 개미와 같은 성실함과 노력을 잊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여 국민에게 안전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

□ **인생은 온몸을 던질 각오와 투지가 없으면 얻을 게 없다. 인생은 승부다. : 이명주 소방위(30세)**

- 해군 SSU 중위로 복무 중 선체인양이나 시신수습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학교 선배이자 군대 선배인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박현원 소방위의 합격수기를 보고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 해군 특수부대 출신도 출신이지만, 운동을 좋아했기에 체력시험에는 자신이 있었다. 시험제도가 해마다 바뀌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바람에 22~23기 때는 1문제 차이로 아깝게 시험에서 떨어졌다.
- 24기 시험은 문과출신이지만 자연계열로 응시, 살아오면서 군대를 비롯하여 이보다 더한 역경도 많이 이겨냈는데 이과로 도전해서 못

해낼 게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여 마침내 합격하였다.

- 먼저 합격하고도 1년간 기다려준 선배이자 여자친구 23기 간부후보생 이지은 주임, 아들을 믿는다고 끝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1년 간 중앙소방학교 생활을 하면서 평생 믿고 의지할만한 동료들을 얻었다.
- 실무에 나가면 계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직원들에게 낮은 자세로 먼저다가가며 솔선수범하는 초급간부가 되겠다.
- 또한 현장 경험을 잘 쌓고 군 경력을 살려서 현장에 강한,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간부가 되겠다.

□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 한상헌 소방위(28세)

- 어릴 적 아버지의 직업이 소방관이라는 것이 원망스러운 적이 있었다. 그 당시 2교대 근무체제로 하루는 근무, 그 다음 비번 날에는 전날 근무로 인한 피로로 쉬어야만 했기에 가족이 다함께 보낸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에도 갑작스런 사고로 비상이 걸리면 곧장 달려가는 모습, 위험한 현장에서도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을 입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래서 어릴 적 아버지는 많은 직업 중 하필 소방관을 선택했을까 생각도 많이 했다.
-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숭고한 직업인지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소방관이 되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다.
- 항상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소방관이 되겠다.